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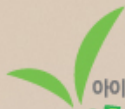
약속합니다!

내 아이가 생활하는 어린이집,
 꼼꼼히 살펴야 할 게 많죠?
 선생님은 좋은지, 급·간식은 안전한지,
 환경은 쾌적한지...
 내 집에서 키우는 것처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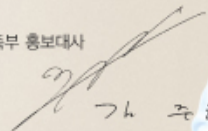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6600
 www.mogef.go.kr



아이의 꿈이 크는 세상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약속

여성가족부 홍보대사


 박은하



여성가족부

안심하세요.
내 아이처럼 돌보고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약속입니다.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또 하나의 우리집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책임지는

발달놀이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문 보육교사가 양육하는

육아시설

부모의 경제·사회활동을 돕는

가족행복 키움터





더욱 커진 보육료 혜택



다양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모든 영아에게 기본보조금 지원
- 0세 29만2천원/ 1세 13만4천원/ 2세 8만6천원
- 만5세아에게 무상보육료 16만2천원 지원
-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기본보조금이란?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영아 1인당 보육료로 교사의 보수교육, 급간식비, 교재교구 구입 등에 사용되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쾌적한 보육환경과
영양이 풍부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합니다.

- 영양사가 관리하는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급·간식
- 비상대피시설 설치와 대피훈련 등 안전관리 강화
-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의무화

안전 교육 기준은?

어린이집에서는 수시로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교육 등을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엄격히 관리**하여
영유아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핍니다.

- 국가자격증제도를 통한 보육교사와 원장의 엄격한 자격관리
- 정기적인 보수교육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자격 관리는 이렇게!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연령에 따른 표준보육과정

성장·발달에 따른
다양한 놀이학습과
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표준보육과정 보급으로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 운영
- 신체·정서·사회성·언어·인지 등
균형있는 발달 도모
- 생활습관 지도 및 초등교육과의 연계 학습 강화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6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2세 미만, 만2세, 만3~5세의
연령에 맞춰 개발된 국가차원의 보육과정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보육시설평가인증으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환경, 운영,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일정 수준을 갖춘 시설에 부여하는 평가 제도로
부모가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맞춤서비스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가정 여건에 맞춘 종일반, 시간연장, 직장 보육서비스 제공
-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
- 장애아 전담·통합 보육서비스 확대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보육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한 시설 운영 참여
-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시·군·구) 운영

지금,

전국 **29,823**개



어린이집에서는

1,062,415명의 아이들이



162,719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아이의 꿈이 크는 어린이집,
우리의 미래도 함께 자랍니다.